

안녕하십니까?

원음방송 청취자 여러분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입니다.

**원불교 열린 날, 대각개교절을
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**

**원불교는 그 동안 정신과 물질의
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생활 종교로
우리 국민들 사이에 깊이 뿌리 내려
졌습니다. 또한, 화합과 상생의 사회를
만들기 위하여 종교간 대화 그리고
다양한 사회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**

**이번 대각개교절에도 ‘모두가 은혜
입니다’ 라는 주제로 이웃과 함께하는
자리를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.**

**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은 소통과
나눔입니다.**

**소통이 있어야 평화가 있고, 나눔이
있어야 행복이 있습니다. 이러한
정신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계신 교도님
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.**

**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부처님 오신날을
맞이하러 ‘함께하는 나눔, 실천하는**

수행'이란 주제로 축제의 한마당을 준비했습니다. 특히 우리의 전통문화인 연등회를 이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 준비하고 있습니다.

사회와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종교, 개인의 수행을 생활화 하는 종교로 함께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

다시 한번 대각개교절을 봉축드리며, 여러분 모두 큰 깨달음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.